

# 전북도, 소상공인 4170억 회생자금 가동

**‘회생 보듬자금’ 업무협약 체결 시군·금융기관 21곳 공동 참여 특례보증·이자보전 저금리 지원 업체당 최대 2억, 최장 8년 보증 고환율·내수 침체 속 경영회복 도모**

전북도가 고환율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4,170억 원 규모의 ‘회생 보듬자금’을 본격 가동한다.

시군과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통해 저금리 자금과 장기 보증을 제공해 경영 회복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10일 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1개 시군, 8개 금융기관, 소상공인 연합회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에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순창, 고창, 부안 등 11개 시군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하나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이 참여한다.

21개 기관은 총 333억 6천만 원을 공동 출연한다.

전북특별자치도 20억 원, 전북신용보증재단 90억 2,000만 원, 11개 시군 56억 5,000만 원, 8개 금융기관 166억 9,000만 원이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을 맡아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듬자금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두 방식으로 운영된다. 직접지원은 도와 금융기관 출연 재원을 바탕으로 특례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간접지원은 시군 특례보증에 도가 이차보전을 더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구조다.

지원 한도도 기업 상황에 맞춰 차등 적용된다.

경영예외기업은 최대 7천만 원, 신용보증재단과 첫 거래 기업은 최대 1억 원,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은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최장 8년까지 가능하다.

도는 3년간 연 1.0%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시군도 연 1~3%를 추가 지원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협약식에서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4,500억 원을 목표 보증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오늘 협약이 도내 모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다시 한 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설 명절 장보기 전통시장에서” 전북도는 10일 노홍석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신중양시장 상인회와 도·전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신중양시장을 찾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사진=전북자치도>

# 민주-혁신당 합당 ‘불발’ 선거 전 통합 논의 일단락

**민주 의총 “통합 명분은 공감 시가상 합당 추진은 어려워” 최고위 합당 불가 입장 정리**

**혁신당 측 기대 무산·과장 불가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전 합당이 무산되었다.

민주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온 지방선거 전 혁신당과의 통합에 대해 논의의 끝에 통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날 오후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 무산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대체로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으나, 현 상황에서의 합당 추진은 명분이 있더라도 추진이 어렵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진중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20여 명의 의원들의 발언이 있었다”며 “발언 내용을 종합하면

첫째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이 지방선거 압승을 통해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진정성으로 비롯됐다 해도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귀결되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명시적으로 합당에 반대해 표명한 의견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러나 한두 분 정도는 명시적 반대는 아니지만, 선거 후 합당에 대해서도 약간의 우려의 지점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다. 대체로 합당에 대해 공감하는 발언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의원총회 결과를 바탕으로 합당 불가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합당을 추진해온 정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게 됐으며, 합당에 긍정적이었던 조국혁신당은 합당 불발에 따른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서울=김영목기자

# “설 대목 전통시장으로” 신중양시장서 장보기 행사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 현장 방문 제수용품 구매 경기·소비 동향 점검 온누리상품권 이용 권장 홍보**

전북도는 10일 전주 완산구 태평동 신중양시장을 찾아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민생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촉진과 상인 격려, 민생 경제 현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수용품과 생필품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운영 실태와 현장 분위기를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에는 노홍석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신중양시장 상인회와 도·전주시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노 부지사는 신중양시장 점포를 돌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과일·채

소·정육 등 설 제수용품을 직접 구매했다.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명절 대목 체험 기회와 소비 동향을 점검했으며,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권장하는 홍보도 병행했다. 아울러 명절 성수기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에 대해서도 상인들과 의견을 나누며, 도 차원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정책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설 명절은 전통시장이 가장 활기를 띠는 시기”라며 “도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는 것이 지역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 모두가 전통시장에서 정을 나누고 지역 상권에 힘을 보태 주시길 바라며, 전통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현대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 대학가 불법중개 ‘칼 뽑았다’ 특별단속 나서

**도·시군·생활안전지킴이 합동점검 원통 허위매물·폭리 수수료 단속 월세 선납 요구 사례 제보... 공인중개사의무 이행 여부 확인**

전북특별자치도가 최근 대학교 입학 시기를 전후하여 증가하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 청년들의 피해예방 등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 불법중개 행위를

에 대하여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27일까지 3주간 설 연휴 전후로 진행되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함께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교 개강을 앞두고 원통 등 임대차 거래가 급증하는 대학가 인근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허위과장 매물 광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중

개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허위·과장 매물광고 ▲중개보수로 초과수수료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준수 여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자격증대여 등이며, 중개보수로 초과수수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일부 중개업소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월세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임차료(월세)를 선납식으로 요구하는 행위가 제보됨에 따라 해당 공인중개사가 계약

과정에서 선납에 따른 관리관계와 중도 해지 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등을 다하였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월세의 선납 방식이 법적 금지사항은 아니나, 임차인의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을 제약할 우려가 큰 만큼 계약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현행 법 상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 관계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도 성실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장정철 기자

## 정읍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사랑기부제란?

[2023. 1. 1. 전국 시행]

- 개인·법인·단체 주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 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 모금된 기부금은 지역 발전에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부처** 주민등록상 주주지를 제외한 지자체  
**기부자** 개인(법인 불가)  
**기부혜택** ① 세액공제 10만 원까지 100% 전액 세액공제(현행과 동일)  
 ※ (2026년부터) 10~20만원 44% 세액 공제 / 20만원 초과분 16.5% 세액 공제  
 ② 답례품 제공 (기부금 30% 상당의 지역특산물)  
**기부금액** 개인별 연간 2,000만원 이내(모든 지자체 기부금액 합산 기준)  
 \* 10만원 기부하시면 13만원을 돌려드립니다.(10만원 세액공제+3만원 답례품)

### 어떻게 기부하나요?

**온라인 기부하기** 간편하고 빠르게! PC, 핸드폰 모두 가능! 5개 시군은 여권을 통해서도 기부 가능

회원가입	기부하기	답례품 받기
1 고향사랑e음 접속 2 회원가입 (카카오톡 연동)	3 '기부하기' 클릭 4 '정읍' 선택 후 기부금 납부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5 '정읍시 답례품' 클릭 6 답례품 수령 및 주문하기 (문 앞 배송 완료)

**오프라인도 가능!**  
**NH농협은행**  
 PC나 핸드폰에서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인근 NH농협은행을 방문해주시면 오프라인 납부 및 고향사랑e음 안내 가능합니다!  
 (영업시간 09:00 ~ 16:00) ※ 신분증 지참

지금 기부하기  
  
 <고향사랑e음>

### 답례품 현황

**농축산물** 한우, 쌀, 귀리, 잡곡, 만감류(홍예향), 토마토, 태추단감, 블루베리

**가공식품** 쌍화차, 고추가루, 참기름, 들기름, 전통주, 감식초, 지황제품, 등근마즙, 복분자주, 김치, 오트밀&그레놀라, 블루베리잼, 블루베리즙, 증류식 소주

**제조품** 기능성 삼푸, 헤어팩

**지역상품권**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 지류형 정읍사랑상품권

※ 2026 정읍시 고향사랑 기부제 스페셜 이벤트 : 기간(2026. 2. 1~2. 22), 대상(정읍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 당첨자(100명), 경품(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원권)

정읍시 | 시민소통실 대외협력팀 ☎063) 539-5067-8

# 도 “광역 SOC 대전환” 공항·도로·철도 착공 총력

### 국가계획 반영 7대 핵심과제 제시 새만금 국제공항 하반기 착공 목표 무주~대구 고속도로 예타 통과 추진 전주권 광역교통 도시재생 병행

전북도가 2026년을 ‘광역 SOC 대전환’을 통한 지역성장 기반 구축의 원년’으로 삼고 국가계획 반영부터 핵심 광역 인프라 적기 착공, 교통·주거 민생 안정까지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은 10일 ▲고속도로·국도·철도 주요 SOC 사업 국가계획 최종 반영 ▲새만금 국제공항 2026년 하반기 착공 추진 ▲무주~대구 고속도로 및 전라선 고속화 예타 통과 등 7대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2026년 정부가 수립하는 고속도로·국도·철도 국가계획을 전북 도약의 결정적 기회로 보고 전북의 핵심 노선들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전방위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6~30)에 전주~무주와 완주~세종 노선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에 23개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에 서해안선·영호남내륙선 등 주요 노선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포함되도록 집중 대응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15개 사업(약 2조 2천억원)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6~30)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항소심 소송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 사업의 정당성을 적극 입증하고 사전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하여 항소심 승소 후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무주~대구 고속도로는 영호남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 동서축이자 관광·산업 연계 노선으로 정책적 타당성 확보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은 10일 ‘광역 SOC 대전환’ 7대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사진은 무주~대구 고속도로 사업 위치도. <사진=전북도>

전라선 고속화(예타통과), 달빛철도(예타면제) 등 이미 국가계획에 반영된 철도사업은 예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지도·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시행으로 조기 개통을 목표로 집중 관리한다.

또 전북 균형발전을 주도할 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과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해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시행으로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도시지역 내 공공주택 공사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과 혁신

## 이원택 “호남선 고속철도 40% 이상 늘어야”

### 경부선 대비 운행좌석 격차 지적 “수요 아닌 정책 불균형 문제 비정상적 운영 바로잡을 것”



이원택 의원

상이 고속철을 이용할 만큼 충분한 수요를 갖춘 지역”이라며 “문제는 수요 부족이 아니라 수도권·경부선 중심으로 굳어진 국가철도 운영 정책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원택 국회의원이 10일 호남선 고속열차 운영을 40% 이상 확대되어야 하고, 전라선 고속열차도 같은 수준으로 늘려 전북의 구조적인 교통 소외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선과 전라선 고속열차의 운행이 경부선 고속열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도민들의 교통 기본권 회복과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호남선 고속열차 운영을 경부선 수준으로 끌어올려 나가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부선은 평일 기준 하루 115회, 주말에는 136회의 고속열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호남선은 평일 69회, 주말 72회에 그치고 있다. 좌석 수도 주말 기준 경부선이 하루 17만 7천 석인 데 비해, 호남선은 6만 8천여 석으로 세 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열차 편성에서도 격차는 뚜렷하다. 경부선에는 900석이 넘는 대형 고속열차가 주력으로 투입되는 반면, 전라선을 포함한 호남선에는 400석 안팎의 소형 편성이 대부분이다. 배차 간격 역시 경부선은 10분 내외인 반면, 호남선은 20분 안팎으로 벌어져 있다.

특히 전라선 고속열차는 호남선보다도 더 적게 편성되고, 작은 열차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주말과 출퇴근 시간대의 좌석 점유율이 100%를 훌쩍 넘기면서 도민들이 애초부터 표를 끊을 기회도, 앉아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적은 실정이다.

이 의원은 “호남선과 전라선이 오가는 전북은 이미 연간 800만 명이

이 의원은 이같이 도민들이 고속열차표를 구하기조차 어려운 가운데 호남선과 전라선 고속열차 편성을 현행보다 각각 40%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재 소형 위주로 편성돼 있는 것을 대형 위주로 조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에서 익산역 또는 전주역으로 오가는 고속열차 중 일부가 서대전 쪽으로 돌아 나가면서, 직선으로 갈 때보다 30~40분 가량 더 걸리는 우회를 줄여 ‘서울-전주 1시간대’, ‘서울-여수 2시간대’ 이동 환경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나아가 군 단위 지역 주민들도 한번에,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속열차 도착·출발 시간에 맞춘 일반 열차 시간표를 전면 재구성해 ‘버스 시간’에 나를 맞추는 전북이 아니라, ‘열차 시간에 맞춰 어디든 갈 수 있는 전북’으로 바뀌나갈 계획이다.

이 의원은 “교통은 선택이 아니라 열차 한 편과 좌석 하나가 도민 한 사람의 삶의 기회와 직결되는 기본권”이라며 “교통 격차를 방지하면 결국 인구나 산업,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전북의 일자리와 산업 정책과 같은 급의 국가적 과제로 끌어올려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JBT 광고 문의 063-282-0604 구독 문의 063-282-0603 전북타임스 www.jbttimes.com

## 전북도의회, 군산 주공시장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 문승우 의장 등 현장 방문 상인 격려 온누리상품권 구매 소비 촉진 도모 장보기 물품 복지시설 나눔 실천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0일 군산 주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며 이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승우 의장(군산4) 등이 참여했다.

도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온누리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홍보·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또한 e-커머스 시장 확대 등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미리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쌀, 생필품 등을 구매해 군산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문승우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경제 공동체이자,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생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전통시장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의회가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의회는 10일 군산 주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들을 응원하며 이용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전북도의회>

## 윤준병, 농지 민간동물보호시설 양성화 법 개정 추진

### 4월 신고 의무화 앞두고 혼란 우려 농지법 위반 다수...현실 긴급지적 농지 사용 협의 적법화 근거 마련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4월 27일부터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 의무화에 따라 농지에 설치된 미신고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현실적인 양성화를 지원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개선법’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지난 2023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일부 사육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집단 사육 방지 등을 일컫는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 등의 동물 학대 문제를 방지하고, 사육보호소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서 관리하기 위해 신고 의무를 두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민간동물보호 시설 신고제도 는 보호동물 수가 400마리 이상인 곳은 2023년 4월 27일부터, 100마리 이상인 경우 2025년 4월 27일부터, 20마리 이상인 경우 2026년 4월 27일부터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도록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신고제 시행까지 두 달 밖에 남았지만, 신고제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을 실정이다. 실제, 현재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상당수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지어진 시설들로, ‘농지법’ 위반 상태에 놓여 있어 신고가 어려운 등 현실과 제도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보호 중인 동물의 존재와 새로운 복지 확보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들 시설이 철거나 이전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적법화 요건을 갖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태다.

이에 윤 의원은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안착시키고, 동물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 4월 이전부터 운영 중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농지법규제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농지의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법의 울타리 안에서 관리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동물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전북연구원 “도 1만5천 ‘쉬었음 청년’ 맞춤형 지원해야”

### 비경제활동 청년 12.8% 전주 최대 정신건강 연계 등 통합지원 제안

전북연구원은 전북지역 청년 니트(NEET) 실태를 분석한 결과, ‘그냥 쉬었음’ 상태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준 전북의 ‘쉬었음’ 청년은 1만5,283명으로

로 청년 비경제활동동인구의 12.8%를 차지했다. 특히 전북은 전국과 달리 20대(7,664명, 50.1%)와 30대(7,619명, 49.9%) 규모가 거의 유사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별 규모는 전주가 7,18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 완주, 김제, 정읍, 익산 순이었다. 진안·고창·순창은 비중이 평균보다 높았다.

전북 청년 비경제활동동인구 유형은 취

업준비·구직형(24,158명), 돌봄·가사형(21,806명), 비구직형(쉬었음, 15,283명)이 핵심 축을 이룬다. 특히 20대 후반에는 취업 준비·구직형이 급증하고, 30대 중후반에는 돌봄·가사형이 주류로 전환되는 등 연령별 패턴이 나타났다.

연구원은 3개월 이상 ‘쉬었음’ 진입 시 조기 개입, 유형별 맞춤형 지원, 일 경험 제공, 고용·복지·정신건강 연계 등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김은지 기자

## 겨울철 안전점검사항

**전기 피복 확인**

**전열기 장시간 사용금지**

**콘센트 사용 과부하 과열 주의**

**수시로 주변 환기**

**한파 대비 주변 한파 심터 확인**

**장시간 추위 노출 시 발생하는 동상, 저체온증 등에 유의하세요**

# 전주시 2026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 추진

##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교통대책상황실 운영

2026 설 명절 전주시는 장애인 콜택시 '이지콜'과 마을버스 '바로온'을 정상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주시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된다. 전주시 특별교통대책 추진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진된다.

먼저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각각 교통 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는 상승 정체 구간 한옥마을 공영주차장 주요 진입로에 교통봉사대 등 일일 8명의 현장 인력을 투입해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등 교통 관리에 집중한다. 여기에 시는 한옥마을과 제4주차장(대성주차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5대를 무료로 운행해 한옥마을 제1·2주차장으로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시켜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한다.

동시에 전주역 일대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코레일, 경찰서와 협력해 교차로 교통 정리와 임시주차장 안내, 역사 내·외부 승객 보행 안전 관리 강화 등에 공동 대응한다. 무료로 개방되는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으로 △건산천 제1주차장(77면) △서신동(131면) △노송천(70면) △중화산2동(75면) △신시가지 흥산광장(120면) △효천지구 주1주차장

(44면) △만성지구 주4주차장(26면) △만성지구 주7주차장(65면) △평화2동(13면) △에코시티 주12주차장(52면) △하가 리드빌딩(23면) △종합경기장(169면) 등 42개소 3400면이 무료로 개방된다. 반면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한옥마을 공영주차장(제1·2·3, 노상) △오거리 공영주차장 △삼천2동 공영주차장 △덕진광장 공영주차장은 무료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설”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전주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선물용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5일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중·소형 유통매장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은 설 대목을 맞아 농산물 유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둔갑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과일류(사과·배 등), 김치류(고춧가루), 나물류(고사리·도라지 등)이며 선물용 과일세트, 한과류, 전통식품 등이다. 특히 시는 점검 기간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단속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합동 점검반은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거짓 표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미표시),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소민 기자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

## 전북경찰청 설 명절 스미싱 사기 피해주의 당부

“사이버 치안 확보에 총력” 백신프로그램 설치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 ○ 본인인증 명목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시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말고,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 등은 바로 삭제 개인정보 유출 보호. ■ 사이버 사기 등 범죄 피해 발생시 ○ 경찰청(112)에 전화 신고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 피해 신고. ○ 사이버 사기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대금 송금 이체 내역서, 사기 피해가 발생한 갈무리 화면 등 증거자료 첨부 신고. ○ 스미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스마트 폰 내 ‘다운로드’ 앱을 실행해 문자를 클릭한 시점 이후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의 저장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파일을 삭제해야 한다. 또 악성앱 감염 유도를 위해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처, 정부·공공기관 사칭,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처 유도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 ■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 등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 인터넷 주소 또는 전화번호 절대 클릭 금지. ○ 출처 없는 앱 설치 금지,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 및 스마트폰

## “전주시 농업 현장 불법소각 줄인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파쇄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오는 3월부터 파쇄지원단이 농가 작업 여건과 시기를 고려해 현장 방문해 파쇄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은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된다. 시는 사업을 통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을 줄여 산불 및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파쇄된 영농부산물을 퇴비로 활용해 토양 환원 등 농업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노후·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관리주체 부재인 소규모 공동주택 선제적 유지보수 비용 지원

전주시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노후화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

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두 사업은 경비원 등 근로자 근로조건 향상 도모와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이 핵심이다. 시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20

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전체 사업비 70% 이하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경과연수에 제한 없이 최대 50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시는 4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조경 및 울타

리 개선사업 △석축·옹벽 보수 등 관리비용에 필요한 사업비의 80% 이하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5일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열고 사업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공공예식장 협력 결혼전문업체 모집

## 고품격 웨딩서비스 제공 기대

전주시가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한 데 이어 전문 웨딩업체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제공키로 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전주시 공공예식장 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결혼 비용을 설계하고 종합적인 웨딩컨설팅 지원할 역

량 있는 결혼전문협력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은 민간 전문성 더해 예비부부들에게 보다 고품격 맞춤형 웨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모집 업체는 전주시 소재 결혼전문업체로, 공공예식장 또는 이와 유사한 야외 예식 진행 경험이 풍부한 업체다.

이와 함께 기획과 물품, 음향, 공간연출 등 기본서비스부터 스·드·메와 피로연 음식 등 선택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종합 웨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업체여야 한다. 선정된 협력업체는 예비부부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결혼서비스 표준가격안을 마련한다. /정소민 기자

결혼식 준비 단계부터 행사 당일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 관련 서류를 갖춰 전자우편,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 의류교환마켓 운영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이 순환경제 사회 위한 신규사업으로 의류교환마켓을 운영한다. 전주시새활용센터는 센터 1층에 ‘사지 않고 바꾸는 옷장’을 콘셉트로 한 순환의류마켓을 조성·운영하는 ‘21% LAB’ 전주 거점공간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의류 교환 공간과 수선체험 공간을 조성해 방문객이 가져온 의류를 전시 중인 제품으로 즉시 교환 또는 추후 사용 가능한 교환 티켓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센터는 오는 19일 오픈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특히 사업은 지속가능한 의생활을 위해 활동 중인 다시봄 연구소와의 협력으로 추진된다. 센터에서 제공받은 교환 티켓은 전국 21% LAB 참여사업장인 △전주 제비마트 △전주시 새활용센터 △서술 늘보라



전주시새활용센터 ‘다시봄’이 순환경제사회 위한 신규사업으로 의류교환마켓을 운영한다. △광주 한결음가게 △부산 그림책방 사본사본 △강원 바느질음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다시봄은 그간 전문가사로 육성한

감사단을 활용해 새활용 테마의 찾아가는·찾아오는 교육을 상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교육수요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함으로써 새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거점 공간의 역할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시봄은 새활용을 테마로 다양한 전시도 선보인다. 현재 다시봄에서는 박두리·이정란·최무용 작가의 ‘귀결된 모퉁이’ 전시가 3층 기획전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에서는 업사이클링 기구와 탄소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여기에 다시봄은 기획전시를 위해 최근 작가 모집을 완료했으며, 이르면 오는 3월 새로운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새마을회 2026년 설날 떡국떡 나눔행사

지역민 이웃 500여세대 전달 전주시협의회, 새마을문고전주시지부, 직장·공장새마을운동전주시협의회 소속 남·여 지도자 20여명은 전주 지역 홀몸어르신, 저소득, 소년소녀가장, 장애우 등 취약계층 약 500세대에 떡국떡을 전달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고액기부 행렬 이어져

(썬)에스에스티 500만원 기탁 기반의 제조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시는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청년만원주택 전주 청춘별채 △영화의 도시 전주, 미래 영화인 육성 △1인 가구 온기프로젝트 △전통한지 제조 타나루 수매 △전주형 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익산 삼기농공단지에서 위치한 썬에스에스티는 지난 2010년 설립 이후 전시·광고 산업에 필요한 조명 장치 및 관련 장비를 생산하며 산업단지

## 새만금청 ‘산업단지임주관리단’ 출범

새만금개발청 산업단지 관리 기능을 통합한 자율기구 ‘산업단지임주관리단’이 10일 출범했다. 출범한 산업단지임주관리단은 ‘기업지원단’ 산업단지 관리 기능을 추가한 입주 결정부터 가동·폐업 이후

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도록 역할을 확대한 조직이다. 이를 통해 입주 예정 기업 △가동 중인 입주기업 △폐업·이탈 기업 등 단계별 상황에 맞춘 관리 방식이 도입된다. /정소민 기자

# 중기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총 134억 원 투입해 약 2500개사 기업 지원 기술보호올타리서 신청

중기부는 중소기업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11일 시행한다. 기술보호 지원사업 예산은 총 134억 원으로 약 2500개사 중소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보호 바꾸려는 중소기업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결과에 맞춰 바꾸어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보호지원반, 기술자료 입치 및 지킴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참여하는 모든 기업은 보안수준 진단을 받으며 초보기업 3천만원, 유망기업 5천만원, 선도기업 7천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기술자료 입치는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분쟁 발생시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적 추정력을 부여하는 제도

다.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전문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최대 7일(기본 3일 + 심화 4일) 맞춤형 컨설팅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은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물리적·기술적 보안 인프라 구축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기술지킴서비스는 실시간 보안관제 및 내부정보 유출방지 프로그램(30copy, 3년)을 무료로 제공해 사이버 해킹 및 내부자에 의한 기술유출을 사전에 차단한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해외 기술침해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보험료의 70~80%를 정부가 지원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보안·법률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법무지원단은 기술침해 분쟁 기업에 변호사·변리사를 매칭해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은 전문기관을 통해 기술침해로 어느정도의 손해를 입었는지 피해액을 산정해주며, 산정수수료의 50~90%를 정부가 부담한다.

기술분쟁 조정·중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중재' 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준다.

디지털 포렌식은 기술유출 관련 디지털 증거 수집·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기기 분석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무료 제공한다.

중기부는 경찰청, 지식재산청, 방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법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 통합 포털 기술보호올타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 농진청 "인삼 청년농업인 역량 키운다"

### 신품종·신기술 확산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1~12일 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11~12일 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케이(K)-인삼 청년농업인' 회원들과 공동 연수(워크숍)를 연다.

이번 행사는 인삼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와 신품종·신기술 현장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케이(K)-인삼 청년농업인 회원 평균 연령은 약 36세다. 인삼 재배 농가 평균 연령이 약 66세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젊은 조직이다.

이들은 신품종·신기술 도입 확산을 이룰 핵심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행사 첫날 청년농업인이 발굴한 현장 과제 발표와 신기술 특강이 있을 예정이다.

케이(K)-인삼 청년농업인 안시

영 회장이 '열 차단제(차열제)를 활용한 고온 피해 경감 기술'을 주제로 현장 과제를 제안한다.

(취경농은 '이어짓기(연작) 장해 경감을 위한 최신 토양소독 기술'을 소개한다.

이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장락 연구관은 '인삼 신품종과 노동력 절감형 재배시설', 유진 연구사는 '이중구조 하우스를 활용한 인삼 안정 생산 기술' 보급 사업을 각각 소개한다.

현장 견학 시간에는 금산군농업기술센터 안 '인삼 뿌리썩음병원균 밀도 진단실'을 방문해 이어짓기(연작) 장해 경감 기반 기술을 살펴본다.

이후 '인삼 산업 발전을 위한 청년농업인-연구자 간 협력 확대 방안' 주제로 토의를 진행한다.

김영태 기자

#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상생나눔 실천

### 사회공헌 집중 기간 기업 참여 기부처 확대

2026년 설 명절 기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지역 내 소외된 이웃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공헌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

이 원장은 오는 13일까지 '사회공헌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나눔활동은 지역 내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을 방문해 간담회와 격려품 전달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나눔활동에는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임직원, 팍조아 농업회사법인, 맑은상화에프앤비, 전북은행 등이 동참하며 기부처 확대에 이어졌다.

상생나눔지원대상은 삼성휴먼빌 등 도내 복지시설 4곳으로 각 시설 특성에 맞춰 온누리상품권 및 현물 등 600만원 상당이 전달될 예정이다.

바이오진흥원은 도내 농식품기업 및 전북은행과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 위한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농신보 정읍권역보증센터, 3764억원 신규 보증 추진

### 농가소득 증대 기반 지역경제 발전 기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읍권역보증센터(이하 농신보 정읍센터, 센터장 홍영석)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흥"이라는 가치 아래에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약 3764억원 신규 보증을 지

원 계획을 밝혔다.

농신보 정읍센터는 지난 20여년 이상 지역의 농어촌경제 기반 조성 및 균형 발전과, 청년 농림어업인 등 보증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했다.

농림어업 능동적인 보증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는 보증잔액 8177억 달성을 이뤘다.

농신보 정읍센터 센터장 홍영석은 "대내외 혼란스러운 정치상황과 침체하는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농어촌 경제가 어려움을 겪겠지만, 농신보 지원을 통한 농업인구 유인으로 농어촌 고품질 쌀과 농가소득 증대를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이다.

농신보 정읍센터는 정읍, 부안, 고창 관내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총 79개 관할 금융기관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 부안농협, 위더스상수상·NH농협은행 전북본부, 쌀기탁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장길환 본부장(이하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장길환 본부장)은 지난 5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1200만원 상당의 쌀 4000kg를 기탁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이번 기탁을 통해 지역사회 회분을 불어넣었다.

정소민 기자

을 육성 지원하는 상이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장길환 본부장(이하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장길환 본부장)은 지난 5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1200만원 상당의 쌀 4000kg를 기탁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이번 기탁을 통해 지역사회 회분을 불어넣었다.

정소민 기자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10일 공단 본부에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현 위원장과 '실노동시간 단축 위한 노사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 국민연금공단-공공운수노조, 실노동시간 단축 나서

### '노사 공동선언식' 개최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10일 공단 본부에서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현 위원장과 '실노동시간 단축 위한 노사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선언식은 공단과 지부가 함께 뜻을 모아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선언에서 공단과 지부는 실노동

시간 단축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핵심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로드맵' 추진과제(25.12.30.)의 주요 내용인 효율적으로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일터 조성 불필요한 야근·회의 등 비효율적 관행 개선 일하는 방식 혁신과 생산성 향상 직원 휴식 보장 등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상공회의소, 설 맞이 소외계층 위문금 전달

### 사회복지관 등 3곳에 나눔

전주상공회의소 김정태 회장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지난 10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신너머사회복지관, 소화진달래집, 암마사랑요양원 등 지역 사회복지시설 3곳에 위문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서는 김정태 회장, 전주상의 관계자,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들은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정태 회장은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고,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곳곳에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상공회의소는 나눔으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매년 명절마다 전통시장 활성화와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오는 13일에는 삼례전통시장 일원에 전주상의 임·의원 및 도내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하며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농식품부, 쌀 수급 안정 정부양곡 공급 수요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국가데이터처 2월 5일자 산지쌀값 발표 결과에서 전 시기 대비 0.4% 상승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 산지쌀값 동향 (12.15) 228,164(전순대비 0.1) → (12.25) 227,816(Δ0.2) → (1.5) 228,449(0.3) → (1.15) 229,028(0.3) → (1.25) 229,328(0.1) → (2.5) 230,232(0.4)

이에 농식품부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상승폭도 커지고 있어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양곡 공급 방안을 검토했다.

농식품부는 정부양곡 공급 물량을 산정하기 위해 산지유동업체 대상 수요조사를 급주 중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와 현장 재고 상황 등을 감안해 공급 물량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최근 산지쌀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은행, 소상공인 상생 위한 25억원 특별출연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박춘원 은행장은 도내 경기침체 심화 및 소비심리 위축에 의한 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 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25억5천만 원을 특별 출연했으며 총 708억원 규모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특례보증대출

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서 '경영애로기업', '첫남기업', '성장발전기업' 3개 부분으로 나눠 지원한다.

지원은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한도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8년 이내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정소민 기자

# ‘중등교육 기본계획 설명회’… 핵심과제 공유

## 교육과정 운영·장학 체계·진로 지원 중점 정책 구현 방안 모색

전북도교육청은 10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도내 340개 중·고등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중등교육과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교육청과 학교 현장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중등교육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설명회는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운영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 체계 △학생의 꿈을 구체화

는 진로·진학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운영됐다. 특히 업무담당 장학관들이 직접 분야별 핵심 과제를 상세히 안내하며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별 특성에 맞는 정책 구현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아울러 교원의 서·논술형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교과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설계 연수와 문항 개발 자료를 제공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평가 사례 공유를 통해 교원의 평가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10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도내 340개 중·고등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중등교육과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 전북도교육청, 설 연휴 기관 등 주차장 개방

총 733곳 무료 개방

전북도교육청은 설 연휴 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지역 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기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주차장이 개방되는 교육기관은 공·사립학교 701곳을 포함해 분청과 14개 시·군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총 733곳이다.

연휴 기간 학교 등 교육기관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전북교육청 누리집(http://www.jbe.go.kr) 공지사항에서 주차장 위치와 개방 시간을 확인하면 된다.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에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야 하고, 학교 출입 시 안전사고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

/정소민 기자

# “교육복지 전문인력 역할과 책임 등 전문성 강화”

## 특강·사례관리 성장 학생 지원 역량 강화

전북도교육청은 10일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2026년 교육복지 전문인력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연수는 교육복지 전문인력(교육복지조정자, 교육복지사)이 학교 현장에서

수행해 온 역할을 되돌아보며 직무 수행 의미를 재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복지조정자 및 교육복지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교육복지 전문인력이다.

이들은 교육복지우수지원사업 기획·운영,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관련 기

관 협력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연수는 △교육복지 전문인력의 역할과 실천에 대한 성장 특강 △학교 현장 중심 사례관리 실천 이해 △신규부터 고경력까지 교육복지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만저김민섭 작가가 강연자로 나서 교육 현장에서 관계와 돌봄의 의미, 실천의 가치에 대해 공감 중심의 특강을 가

졌다.

이어 김순규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관리 실천을 바탕으로 교육복지 전문인력이 수행하는 학생 지원 과정과 역할을 되짚어봤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학생 지원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

/정소민 기자

# 전북TP-군산대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단 ‘ChatGPT 재직자 교육’

## 생성형 AI 활용 실무 역량 제고 목표

(재)전북테크노파크와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단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 ‘2차년도 ChatGPT 재직자 교육’을 2.10일 새만금 에너지산

업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교육은 생성형 AI 활용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산업 분석 실무 역량 제고를 목표로 기획됐다.

특히 에너지 산업 맥락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과 논리적 사업기획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교육 과정은 △에너지 산업 AI 워크플로우 이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 구축과 팩트 기반 시장 분석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BMC) 및 가치 제안 캔버스(Value Proposition Canvas) 설계 △ChatGPT 이미지 생성과 멀티모달 AI 활용 △정교한 본문 작성과 최종 결과물 완성 등 총 8시간 실습 중심 프로그

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NotebookLM, Gemini 등 최신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출처 기반 데이터 활용, 교차 검증, 논리 구조화를 실습함으로써, 실제 사업계획서와 제안서 작성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도문화관광재단 ‘소공연장 청년인력 지원사업’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도내 민간 소공연장의 운영 안정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민간 소공연장 청년인력 지원사업’ 공모를 2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기획부터 홍보, 행정, 무대 운영까지 1인 다역을 수행해야 하는 도내 민간 소공연장의 열악한 운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민간 소공

연장 10개소이며, 재단은 선정된 소공연장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간 청년 인력 1명씩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채용된 청년들은 공연 현장에서 기획·홍보·행정지원 등 실무 전반을 경험하며 전문성을 쌓게 된다. 이는 청년들에게는 지역 내 안정적인 경력 형성의 기회가 되고, 소공연장에는 젊은 감각과 활력을 더해 운영 기반을 탄탄히 다지

는 ‘상생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단은 참여 인력을 대상으로 기본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이 단순한 인건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공연예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접수 마감은 24일 오후 5시 59분까지다.

세부 자격 요건은 재단 누리집 공고문(jbc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소공연장은 지역 공연예술 생태계의 모태가 되는 소중한 공간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인력 운영의 부담은 덜고, 청년들의 창의적인 에너지가 공연 현장에 녹아들어 전북 공연예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전주교육지원청, 고교 진학지도 전문성 신장

‘진학 원팀’ 연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오는 20일 전주시그니처호텔에서 관내 고교 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진학 원팀(One-Team) 부장교사 협력 리더십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연수는 대입 제도의 변화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도입에 발맞춰, 학교 내 주요 부서가 협력하는 통합적 진학지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대상은 교육과정·창의적체험활동·연구·진로진학 부장 등 고내 진학지

도와 밀접한 주요 부장 교사들이다.

이는 개별 부서 차원의 접근을 넘어, 교육과정 설계부터 평가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학교 시스템 기반의 진학지도’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강사로 나서는 안준범 광주중앙고 교사는 ‘내신 및 선택 과목에 따른 대학의 평가 방식 이해’ 및 ‘학교생활기록부 내 실화를 위한 창의적체험활동 및 탐구활동 운영 사례’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교과와 비교과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업을 강조한 ‘학교 시스템 기반의 진학지도 모델’을 공유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안내문

### 계량기 동파예방 방법

- ☑ 계량기함(통) 내부를 헌옷 등의 보온재로 채워야 합니다.
- ☑ 뚜껑부분은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넓게 밀폐하여야 합니다.
- ☑ 장기간 외출시 수도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량기 및 수도관이 얼었을 때 조치요령

- ☑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양쪽 연결배관을 에어드라이어를 이용하여 서서히 녹여 주세요.
- ☑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서서히 녹여 주세요.
- ☑ 계량기가 동파되면 상수도과에 신고하여 조치받으시기 바랍니다.

### 익산시, 14~18일 설 연휴 상수도 비상근무체제 돌입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은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설 연휴 시민들이 맑고 깨끗한 수도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상수도 누수와 급수불출 등 각종 생활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 대응체제를 마련했다.

해당 기간 상수도과 직원들이 상시 근무하며, 상수도 대행업체 14곳을 지정해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수도 관련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상수도 관련 불편사항에 대해 상수도과(063-859-4411)로 연락하면 비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상수도 비상대책반 운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를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시민들이 상수도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 위한 비상 방역 대응 나서

설 연휴를 앞두고 사람과 차량 이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군산시가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비상 방역 대응에 나섰다.

시는 설 명절을 맞아 축산농가는 물론 귀성객과 시민 모두가 가축질병 유입 차단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며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전국적인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바이러스성 질병은 기온이 내려갈수록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발생하면 치사율이 높다.

또한 복구에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1종 국가제안형 가축 질병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경기도 위주로 6건이었으나, 올해 들어 강원, 경기, 충남, 전남·북, 경남 등 7건 발생, 급격하게 증가 추세다.

특이한 점은 야생멧돼지에서 병원체를 발견하지 못한 지역의 농장에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 차량 등 전파 요인에 대한 차단방역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도 지난해 9월 말경 경기도 파주 소재 농장 발생 후 예년 대비 약 2배가 넘는 38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시와 정부는 전국적으로 농장 점검 등 발생 및 전파 차단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개체 전파 위험성을 감안해 설 명절 전후 농장에 차량·사람의 출입 통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 군산시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군산시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참여자와 관계 공무원 17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10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공일자리 근무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안전보건교육 전문 강사가 강의를 맡아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고유형과 예방 요령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실제 작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사례 공유, 작업환경에 따른 주요 위험요인과 사고를 예방하는 기본 안전수칙을 설명해 참여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였다.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으로 교육에 임했으며, 시는 교육이 참여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철 일자리경제과장은 "공공일자리 사업은 다양한 현장에서 진행되는 만큼 사전 교육을 통한 예방이 중요하다"라며,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현장 관리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신중년 재취업 돕는다

### 자격증 응시료 1인 최대 10만원 지원 취업 역량 강화 도모

정읍시가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신중년' 세대의 재취업과 자기계발을 돕기 위해 '2026년 신중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구직 활동 중인 신중년 미취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 46세~64세 미취업자다. 지원 항목은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어학시험 등 취업과 직결되는 다양한 시험이다.

지원 금액은 응시료의 90%이며,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횡수 제한 없이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는 선착순 지원 방식이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영어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 유아·초등·성인 대상 나이·수준 맞춤형 교육

익산시가 영어에 흥미를 더하고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영어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익산시는 어린이영어도서관에서 상반기 AR(영어독서능력향상)·마이온(myON) 정기 회원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AR은 영어 독해가 가능한 초등학교 70명과 중학생 10명 등 총 80명을 대상으로 하며, myON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어린이영어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AR은 미국 르네상스사에서 개발한 독서 퀴즈 프로그램으로, 개인의 영어 독

서 수준과 관심사에 맞춰 지속적인 영어책 읽기를 돕는다. 3월부터 7월까지 본인의 수준에 맞는 영어책을 읽고, 주 1회 도서관을 방문해 독서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여름방학 기간에는 1대1 컨설팅을 통해 원어민 교사로부터 읽기와 쓰기, 토론 중심의 개별 독서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마이온(myON)은 6,500권 이상의 영어 전자책을 제공하는 온라인 영어도서관 서비스로 올해부터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범위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영어도서관은 유아부터 어린이, 성인까지 아우르는 상반기 영어독서문화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3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스유아 2개 반 스초등 9개 반 스성인 3개 반이 운영될 나이와 수준에 맞춘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험에 응시한 뒤 △응시 확인서 △결제 영수증 △주민등록초본 등을 구비해 정읍시청 일자리정책과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지원 사업이 새로운 도전을 앞둔 신중년 세대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읍시는 신중년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성공적인 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참여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어린이영어도서관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정확한 반 배정을 위해 수강 신청 전 영어도서관을 방문해 읽기 수준을 측정해야 한다.

유아반은 소리 중심의 영어 입문 과정으로 운영되며, 초등반은 단계별 영어책 읽기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한 성인을 위한 원어민 회화 강좌도 함께 마련된다.

유아와 초등 대상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성인반은 수강료 2만 원이다.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다자녀 가정, 유공자, 65세 이상, 우수자원봉사자는 감면 대상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영어도서관(063-859-3475)으로 문의하거나 누리집(lib.iksan.go.kr/eng\_lib)을 참고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 2026년 군산형 창업아카데미 참여자 모집

### AI 활용 교육·상담 통한 지원사업 선정 가능성 ↑

군산시 청년플 창업센터(이하 '창업센터')가 23일까지 '2026년 군산형 창업아카데미'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정부지원사업 평가 기준과 심사 구조를 이해하는 실전형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이며, 정부지원사업 대비 사업계획서 작성을 준비 중인 군산시(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차별화된 전략 수립 역량을 강화해 지원사업 선정 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은 25일부터 27일까지 총 3일간이며,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한 사업계획서 전략 교육 및 인공지능(AI) 활용 특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모집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 주소지(본점)가 군산시인 기창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이고 군산시 소재에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교육 기간(8일) 전 일정 참여가 가능한 자이며, 총 1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센터는 대대인 그룹 멘토링(상담)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수정·보완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사업계획서 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 프로그램 수료생 중 당해

연도 정부자금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업자에게는 창업센터의 '디지털 마케팅 지원' 사업과 연계해 디지털 홍보물 제작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 종료 이후에도 창업센터는 필요시 원스톱 창업컨설팅(1대1 전문가 컨설팅) 제공 또는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등을 통해 창업자들의 지속 성장을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창업아카데미가 지역 창업자들의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북부권역 주요 공공시설 점검

### 생활·체육복지시설 찾아 현장행정 지속 강화

정읍시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생활 안전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현장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9일 △신대인 파크골프장 △신대인 축구장 일원 △북부노인복지관 △신대인 행정문화센터 등 북부권역 주요 공공시설을 방문해 운영 실태와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실행 과제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신대인 파크골프장에서는 이용객 증가에 따른 운영 여건과 편의시설 준비 상황을 살폈다. 특히 주차장과 화장실 등 기반시설이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이용자 관점에서 운영 전반의 편의성을 다시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이어, 신대인 축구장에서는 시설 전반의 관리 상태와 함께, 신대인 축구장 옆



인도 구간에 대한 보행 안전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이 시장은 옹벽 일부 구간에서 구조적 변형과 균열 등으로 통행 안전에 우려가 제기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부노인복지관에서는 경로식당 증축에 따른 개장을 앞두고 어르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연결부 동선과 공간 활용을 세심하게 점검했다. 특마지막으로 신

대인 행정문화센터에서는 누수와 관련한 하자 보수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정밀진단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주문했다.

이학수 시장은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직접 확인한 만큼, 미루지 않고 신속한 개선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설 연휴 '응급진료체계' 가동

내달 17일까지 시민 정책 접수

군산시 보건소가 설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시민과 귀향객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운영한다.

특히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관리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안내 △연휴 기간 진료 운영 상황 모니터링 등 응급진료체계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은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응급실을 정상 운영해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포함한 병·의원과 약국 등 197개소의 의

료기관 역시 날짜별로 운영대 연휴에도 시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휴 중 진료 가능 의료기관·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 콜센터(120) △군산시청·보건소 누리집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다해 보건소장은 "설 연휴 동안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응급진료체계를 운영하겠다"라며 "시민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희망 나눔캠페인' 목표액 135% 달성

총 8억 1300만 원 모금

정읍시가 연말연시 진행한 '희망 2026 나눔캠페인'에서 목표액을 훌쩍 넘기며 사랑의 온도탑 135도를 기록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총 8억 1300만 원의 성금을 모금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액 대비 135%에 달하는 수치다.

이번 캠페인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인해 모금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시작됐다. 하지만 시민과 기업,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자발적이고 따뜻한 기부

행렬이 이어지며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모금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될 예정이다. 주로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비와 의료비 긴급 지원, 사회복지 시설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쓰인다.

이학수 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덕분에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며 "나눔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소중한 성금은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무대 전문가 양성한다

'소극장 아카데미' 운영

문화도시 익산시가 공연을 완성하는 무대 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시는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와 함께 '소극장 아카데미' 수강생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소극장 아카데미는 조명과 음향 등 공연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된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역 공연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실무형 공연장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3월 21일까지 인화동에 있는 '익산소리문화의 숲·소리소극장'에서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공연장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해 △공연 기술 기초 이론 △장비 운용 △안전 교육 △실전 적용 등 단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마지막 차시에는 교육에서 익힌 조명·음향 기술을 실제 공연에 적용해 보는 실전 체험도 이뤄진다.

참여 신청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누리집www.culturecityiksan.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나 전체 교육 과정의 80% 이상을 수료할 경우 수강료는 전액 환급된다.

프로그램 신청과 일정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853-678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간과 인력을 함께 키우는 문화도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익산시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 장학생 선발

익산시가 학업과 예체능 분야에서 잠재력을 지닌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한다.

익산시는 10일 국가무형유산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 자문위원회를 열고, 2026년 장학생 16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자문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신규 신청자 31명에 대한 통합사례관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선정된 장학생들에게는 1년간 매월 30만 원씩, 1인당 연 36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되며, 총 지원 규모는 5,760만 원에 달한다.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는 2013년

부터 진행된 익산시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공동모금회 지정기탁 성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 분야에서 특기와 적성을 갖춘 저소득 청소년을 발굴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재능 개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나은정 복지국장은 "청소년희망나무프로젝트는 단순한 장학금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꿈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김제시, 국가유산 안전 관리 강화

## 방재드론 시스템 추진 드론 기반 국가유산 입체적 방재 체계 구축

김제시는 화재와 자연재해로부터 소중한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2026년 국가유산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2,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유산청 지침에 따라 드론 기반의 체계적인 방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유산인 사적 '김제 금산사 일원'을 중심으로 정밀 예찰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재드론 전문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드론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시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직접 예찰



에 참여해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광범위한 산간 지형을 포함한 금산사 일원은 그동안 인력 중심의 점검에 한계가 있었으나, 방재드론 도입으로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촘촘한 점검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산불 등 재난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실시간 영상을 국가유산청과 관계기관에

공유해 신속한 공동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드론 비행을 통해 수집된 영상과 데이터는 국가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체계적으로 축적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향후 관내 다른 주요 국가유산으로도 방재드론 예찰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은봉기 기자



## 고창 선운산농협, 천일염 환원 '호응'

### 전 조합원에 1인 2포 공급

전북 고창 선운산농협(조합장 김기욱)이 2026년 조합원 복지 증진을 위해 조합원 1인당 천일염 2포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환원사업을 추진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조합원과 함께 일귀는 경영 성과를 다시 조합원에게 돌려주는 생활밀착형 환원사업으로, 농업인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체감도 높은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천일염은 가정 내 식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으로, 김장과 장류 등 농촌 생활 전반에 활용도가 높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품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선운산농협은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1인당 2포씩 천일염을 지급하며, 사전 물량 확보를 통해 공정하고 차질 없는 공급을 진행하

고 있다. 조합원들은 "필요한 생활품을 지원받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선운산농협은 영농자재 지원과 농기계 이용 편의 제공, 금융 혜택 확대 등 조합원 중심 경영을 꾸준히 실천해 왔으며, 이번 환원사업 역시 '조합원과 함께 키운 농협, 농협이 함께 나누는 생활복지'라는 협동조합 정신을 현장에서 구현한 사례로 평가된다.

선운산농협 김기욱 조합장은 "이번 천일염 환원사업은 농협의 성과를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한 작은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복지 중심의 환원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지원사업 추진

## 조리사 대체인력 지원도 보육 안전 강화

전북 고창군이 지역 영유아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지원 사업'과 '어린이집 조리사 대체인력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첫 시행되는 '어린이집 방역소독비 지원'은 감염병 예방과 쾌적한 보

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18개소를 대상으로 실내·외 방역소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연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며 총 860만원의 예산을 전액 군비로 편성했다.

'조리사 대체인력 운영 지원'도 시작된다. 어린이집 조리사 연가·병가 시 대체인력 부족으로 인한 급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예산은 1100만원이며, 특히 올해부터는 대체

인력 미사용 시 연가보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영유아는 감염병과 급식 안전에 특히 취약한 만큼, 어린이집 방역과 급식 관리는 행정이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이번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덜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시비 직불금 162억원 지급

## 발작불금 확대 지급·전국 단위 자체직불금 최대 규모

김제시는 오는 12월까지 농업인(법인 포함) 19,325명에게 시비직불금(소농, 논·밭) 162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비 논·밭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상농지 중 논·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 농업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도내 경자농지에 최대 5ha까지 ha당 전년 대비 단가 5천원 인상된 83만원을 지원하며 농업인 15,783

명에게 149억원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논 중심으로 지원해 오던 시비 직불금 제도를 대폭 개선해 상대적으로 소외되던 밭농업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처음으로 시비 20억원을 확보, 밭작물 재배 농업인에게도 동일하게 직불금을 지원한다.

또한, 소농 직불금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농업수도 위상 확립 및 농업도시 육성을 위해 2023년 신설돼 김제시 거주 소규모 농가의 경영안정 및 대농과 소농 간의 비대칭적인 지급구조의 완화를 위해 농업인 3,563명에게 농가당 36만원씩 13억원이 지급된다.

이번 시비직불금 지급은 자체직불금 중 도내뿐만이 아닌 전국 최대 규모이며, 10일부터 오는 12월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농가에 개별 지급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올해 시비직불금 중 밭작물 확대 지급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농업인 간 형평성 제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밭농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논·밭 차별 없는 직불금 정책 운영으로 농업인 기본소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부안군의회, 제369회 임시회 개최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강력 촉구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10일 제 3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감사위원 선임 및 각종 조례안 등 민생 관련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관 및 산업의 전북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강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농정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전북특별자치도 이전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전북은 농촌진흥청 등 R&D 기관이 밀집해 있고, 광활한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보유한 농업의 심장부"라며,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마사회가 전북에서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글로벌 농생명 메카



가 완성될 것"이라며 농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농식품부의 전북 이전을 강력히 정부에 요구했으며, 이현기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전력 공급망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지적하며 글로벌 RE100 이행이 필수인 상황에서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춘 새만금이야말로 반도체 산업의 최적지"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강력히 제안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번 건의안은 국가 주요 정책에 지역의 여건과 강점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군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주요 투자기업·유관기관 방문

김제시는 이현서 부시장이 지난 9일 관내 주요 투자기업과 유관기관을 직접 방문하며 본격적인 기업 현장과의 소통 행보에 나섰다

이 부시장은 이날 ㈜한우물과 전일목재산업(㈜를 차례로 찾아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기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와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방문해 연구개발 지원 현황과 입주기업 현황을 공유하고, 투자유치 및 기업 지원 협력 방안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난 1월 2일 취임한 이현서 부

시장은 취임 전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 창업지원과장으로 재직하며 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경영과 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한 실질적인 대화를 이어가며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했다.

이 부시장은 "김제시는 관내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 관내 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 고창군, 청년 정책 모니터링단 본격 가동

고창군이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군정 소식을 전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할 '2026 고창군 청년 정책 모니터링단(이하 청포터즈)'을 본격 운영한다.

'청포터즈'는 고창군에 거주하는 청년(18~45세)들로 구성된 소수정예 서포터즈다. 이들은 행정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을 단순히 홍보하는 것을 넘어, 직접 현장을 체험하고 청년 당사자의 시선에서 느낀 점과 개선안을 가감없이 제안하게 된다.

올해 활동하는 청포터즈는 카페 매니저, 교육 강사, 자영업자,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각계각층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준다. 이들은 오는 12월까지 △청년 매입대주택 주거 지원 △청년 창업 지원 △청년 문화·축제 등 매월 정해진 테마에 맞춰 현장을 방문하고,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생생한 정책 체험기를 군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황민안 고창군 생활력경제정책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청년들이 알지 못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무용지물이다"며 "청포터즈가 행정과 청년 사이의 틈을 메우는 든든한 가교가 돼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설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가동

김제시는 설 명절 연휴 동안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연휴 기간동안 시민들이 의료 이용에 불편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지역 응급의료기관인 김제우석병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 응급환자 진료를 책임지며, 민음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이어간다. 또한 늦은 시간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공공심야약국도 문

을 열며, 나은누리약국은 밤 9시부터 자정까지, 새중로약국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 설 연휴 중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 콜센터(120), 김제시 보건소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540-131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 앱, 주요 포털에서 '명절 진료'를 검색하거나 김제시보건소 홈페이지(열린광장-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제=은봉기 기자

## 부안군, 50세 이상 군민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확대

부안군은 최근 대상포진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고령층의 건강 보호와 대상포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안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으로 현재 접종 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군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50세 이상 군민으로 확대했다.

접종은 생백신 1회로 이뤄지며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있거나 면역저하자 등 생백신 접종 금기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상포진에 감염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발병 후 1년 이상 경과 한 경우만 접종이 가능하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연령대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올해 백신 소진 시까지 5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접종 예정이다.

접종 일정 및 시간 등 세부 사항은 부안군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전화, 방문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고창군의회,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가제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10일 고창전통시장을 방문해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소비 패턴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격려하고, 침체된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창군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고창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제품구매와 생활용품 등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이용 촉진 캠페인을 펼쳤다.

의원들은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명절 물가 동향을 살피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소비 위축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며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민규 의장은 "명절을 앞두고 활기가 넘쳐야 할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넉넉하고 인심과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경로당 중심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추진

고창군이 관내 7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로당 건강관리교실은 겨울철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체력 저하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의 일상 속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운동강사와 영양사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신체활동과 영양관리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주 1~2회 스트레칭, 요가, 근력운동, 건강박수 등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신체활동 중심의 건강체조와 함께 노년기 영양관리 교육과 건강 간식 체험 등을 병행해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관리교실과 연계해 혈압·혈당 등 기초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치매·우울 선별검사 △정신건강 상담 등 분야별 통합 보건교육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유병수 고창군 보건소장은 "경로당 건강관리교실은 신체활동과 영양관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꾸준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완주군, 에너지→주민 소득 '햇빛연금' 착수

태양에너지 수익 마을에 환원 구조 문화·체육 등 공공서비스 재투자 39개 마을 참여 의사·높은 수요

완주군이 재생에너지를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해 온 '완주 햇빛연금마을(가칭)'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0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 햇빛연금마을'을 단일 사업이 아닌 '분산에너지-지역소득-산업경쟁력'을 연계한 전략 패키지로 제시하며, 공공이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 방식으로 확산해 나가는 실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유 군수는 "재생에너지는 단순히 발전시설을 늘리는 단계를 넘어,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모델로 진화해야 한다"며, 완주 햇빛연금마을의 핵심은 "전기는 지역에서 만들고, 수익은 주민에게 돌아오

게 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군은 최근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에서 39개 마을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높은 정책 수요를 확인했다.

군은 연간 전국 500개소 수준인 정부 공모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사업 대응과 병행해 공공부지와 유희공간을 활용한 완주형 재생에너지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사업 추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군 직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문화·예술·체육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에 활용해 지역사회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 지원과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시 전력망(계통) 여건을 고려, ESS(에너지저장장치) 등 다양한 수단을 연계하는 유연한 운영 방식도 함께 검토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 참여·주민 환원' 구조를 목표로, 발전소 소유는 마을협동조합이 담당하고 기업은 설계·시공·운영을 수행하되 정해진 대가만 받는 방식으로 역할을 구분한다. 기업이 수익 구조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주민 환원 원칙을 분명히 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의 성과가 일반에만 머무르지 않고 군민의 삶에서 체감되는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기본사회' 관점의 정책 연계도 추진한다.

마을 소득 증대와 더불어 전기를 나누어 쓰는 분산형 운영 체계가 정착되면, 재생에너지 확보가 필수적인 지역 기업들의 알이백(RE100, 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응 여건도 한층 좋아져 지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유희태 군수는 "완주의 사세가 전국적 정책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군,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가동 110곳 참여

설 당일포함 의료공백 최소화 보건소 응급상황실 비상근무

완주군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이어지는 설 연휴를 대비해 주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군은 이번 연휴 기간을 응급의료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총 110개소의 병·의원 및 약국이 참여하는 비상진료 시스템을 운영해 의료 공백을 촘촘히 메울 방침이다.

먼저 보건소 내 설치되는 응급의료상황실에는 명절기간 중 13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돼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상황실은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의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응급 의뢰와 관련 민원 접수 및 조치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지휘본부(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연휴 기간 진료에 참여하는 기관은 일자별로 적절히 배분돼 운영된다.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병·의원 58개소와 약국 37개소가 집중적으로 운영돼 초기 진료 수요를 감당하며, 이후 설 당일을 포함한 연휴 기간에도 공공의료기관과 당직 약국 등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어 주민들의 의약품 구매와 진료 편의를 돕는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도 지역별 안배를 통해 비상진료에 힘을 보탬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상세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센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E-GEN) 앱 △완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완주군 보건소 상황실(063-290-3015)을 통해서도 유선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설 연휴 청결·안전 총력 청소·공중화장실 종합대책

남원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청소 및 공중화장실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

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휴무 없이 정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 민원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시내 중심가와 전통시장, 청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해 명절 전후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쓰레기 투기 및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성숙한 쓰레기 배출 문화 조성에도 힘을 보탬 예정이다.

또한 관내 119개소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위생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동과 및 시설물 파손 여부 △편의용품 비치 상태 △비상벨, CCTV 등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이다.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해 비상벨 작동 상태를 점검하고, 적외선 탐지기를 활용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발효관광재단, 설 연휴 맞이 특별 이벤트 운영

가족 체험 콘텐츠로 체류 유도 한복 방문객 혜택 제공

순창발효관광재단(대표 선운숙)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주말 이틀간 발효테마파크에서 '설날 맞이 특별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연휴 여행에 나선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순창에 머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머무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 기간 동안 발효테마파크에서는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체험을 비롯해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설날 테마 만들기 체험,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는 공연과 현장 이벤트가 펼쳐진다.



순창발효관광재단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주말 이틀간 발효테마파크에서 '설날맞이 특별 이벤트'를 운영한다. <사진=순창군>

가족 단위 참여가 중심이 되는 이번 구성은 세대 간 소통을 이끌어내고, 명절의 따뜻한 분위기를 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테마파크 내 전시관과 체험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관람 동선을 확장하고, 한복을 입고 방문한 이들에게는 특별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이처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요소를 통해 방문 만족도를 높이고, 향후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발효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의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완주군, '지식재산 전문 서비스 협력' 업무협약

지산특허법률사무소 자문 제공 완주 출신 전문가 재능기부 '상생'

완주군이 지산특허법률사무소와 '지식재산 전문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특허나 상표 등 지식재산 관련 행정 업무를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지산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 제도 전반에 대한 기본 정보와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완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의 효율적인 운용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법률 자

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완주 출신 지식재산 전문가가 고향 발전을 위해 전문 지식을 나누는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상표권 및 특허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 군은 이를 통해 군의 무형 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전문 지식을 고향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로 한 지산특허법률사무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시민공감 소통한마당' 3주 대장정 성료

23개 읍면동 순회 현장 질의응답 생활 SOC 민원 등 300여건 접수

남원시는 10일 대산면 방문을 끝으로 '2026 시민공감 소통한마당'의 약 3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선 8기 주요 시정 성과를 공유하고, 읍·면·동별 지역 현안과 생활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월 22일 순회했으며, 시민 질의와 시장 답변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생활 밀착형 민원부터 지역 발전과 직결된 중·장기 현안까지 다양한 현안이 제기됐다. 산동면에서는 농민기를 앞둔 목동마을을 농로 재포장과 부절마을 노면

정비 등 현실적인 건의가 이어졌고, 운봉읍에서는 지리산 둘레길 가로등 설치와 보건지소 인력 배치 등 관광객 안전 확보와 의료 접근성 개선에 대한 요청이 제기됐다. 주천면에서는 저류지 정비와 도로 재포장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들이 논의되는 등 읍·면·동별 특성을 반영한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이어졌다.

접수된 건의는 약 300건으로, 농업 기반시설과 도로·교통, 하천 정비 등 생활 SOC 관련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는 현장 조치가 가능한 사안은 즉시 점검하고, 부서별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처리 계획을 확정된 후 처리 결과는 건의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전국 시·군 유일 '국가유산 재난안전' 표창

조직·예산·현장 연계 안전망 구축 사찰 점검·안전경비원 배치 등 호평

완주군이 10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국 시·군 중 유일하게 '2026 국가유산 재난 안전 유공' 국가유산청장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가유산청이 주관하는 국가유산 재난안전 유공표창은 국가유산 재난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완주군은 차관급 훈격인 국가유산청장 기관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그동안 국가유산 재난안전 정책의 선도적 추진과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군은 국가유산팀 신설 이후 지역(군 전체 면적 821.38km)에 광범위하게 분포된 국가유산 관리를 위해 조직·예산·현장을 연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



완주군이 10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전국 시·군 중 유일하게 '2026 국가유산 재난 안전 유공' 국가유산청장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완주군>

템 구축과 민관협력을 통한 촘촘한 재난안전 관리망 운영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국가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긴급보수 예산편성과 신속한 긴급보수, 국립완주연구소 유치와 협업을 통한 보존·발굴·현장 대응 기반 마련, 국가유산 소재 전통사찰 안전점검 및 현장대

응 강화, 안전경비원 배치 및 수시 모니터링 실시 등이 호평받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국가유산 재난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안전관리 선도 지자체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돈 버는 농업' 박차

이론·HACCP·실습 병행 운영 Si마케팅·영상 제작 교육 '눈길'

순창군은 10일부터 농업기술센터 및 현장 교육장에서 지역 농업인 25명을 대상으로 '2026년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 과정은 10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4월 14일까지 총 10회, 45시간 동안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농산물 가공 창업에 필요한 이론 수업과 함께 HACCP 위생 관리, 제품 개발, 현장 실습 등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교육 과정에는 '농업 창업의 이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

용한 마케팅 성공 사례, 구급 제미니(Gemini)를 활용한 영상 제작, 유튜브 및 라이브 방송을 통한 판매 전략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가 포함된다.

아울러, 과재 주스·잼·동결건조 제품 등의 제조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실습도 순창군 농산물융합가공센터를 활용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수료 기준인 75%(33시간)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향후 순창군이 추진하는 농산물 가공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안정적인 영농 정착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 대표 고품질 설향딸기 홍콩 수출길 올라

10일 딸기 홍콩 수출 선적식 개최 2026년 총 30만 4천원 수출 목표

남원시의 대표 고품질 농산물 '설향' 딸기가 홍콩 수출길에 오른다.

남원시는 10일 춘향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남원시 부시장과 시·도의회의 의원, 전북도 및 농협 관계자, 수출 업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 딸기 홍콩 수출 선적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적된 남원시 설향 딸기는 남원시 설향 품종 1440kg으로, 시세로는 약 5천만원 규모다. 남원 설향 딸기 특성은 겉면에 윤기가 흐르는 선명한 붉은 색을 띤다. 특히 높은 당도의 새콤달콤한 맛과 진한 향을 풍기며 국내·외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시는 이번 홍콩 선적을 기점으로 해외 판로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수출 목표는 총 30만, 약 4억 원 규모이며, 이를 통해 지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 원예농산유통과에 문의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하여 예방접종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한용재 남원시보건소장은 "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예방접종을 할 것"을 당부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진안군, 국가암검진 수검자 상품권 1만원 지급 이벤트

진안군은 국가암검진 조기 수검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국가암검진을 받은 군민을 대상으로 지역 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 중이다.

이번 국가암검진은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검진은 전국 모든 국가암검진 지정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진안군 내에서는 △진안군의료원 △마이외과전형외과 △우리가정의학과의원 등 3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연말 검진 집중 현상 완화 및 상반기 조기 수검 유도를 위해 마련됐으며, 선착순 200명 한정으로 운영된다.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등이며 국가암검진 대상 종목 중 1개 이상을 수검 한 진안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2026년 1월부터 국가암검진을 받고, 2월 9일 이후 수검을 증명하는 서류(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지)와 신분증을 가지고 진안군보건소 1층 어르신헬스케어실로 방문해 서명 후 이벤트 상품권을 수령 할 수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 무주반딧불축제 '제2기 로컬100' 선정

### 친환경 생태축제 정체성 호평

무주반딧불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면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이하 지역문화매력 100선)'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문화매력 100선은 전국 각지의 고유한 문화 관광자원을 발굴해 대표 지역문화 브랜드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대국민 홍보를 통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생활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체류형 관광 모델을 만드는 사업이라는데 이목이 쏠리고 있다.

무주반딧불축제는 축제의 매력성과 지역 문화와의 연계성 등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친환경 생태축제로서의 정체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 또한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주군은 앞으로 2년간 '무주반딧불



무주반딧불축제

축제 지역문화매력 100선' 인증 현수막을 걸고, △지역문화매력 100선 누리집 게재, △사회관계망(SNS) 홍보, △관련 책자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무주반딧불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생태축제로, 올해는 오는 9월 4일부터 12일까지 무주 등나 무운동장과 반딧불이 서식지 일원에서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개최될 예정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 임실군, 저소득층 노인 무료 수술비 지원

#### 무료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한쪽 무료 기준 최대 120만원

임실군은 무릎관절증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으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위해 무료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임실군이 (재)노인의료나눔재단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무료 통증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만60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어르신이다.

지원내용은 무료 인공관절 수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로 한쪽 무료 기준 최대 120만 원, 양쪽 무료는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검사비나 수술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지원 대상자로 확정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수술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수술 예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최근 1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임실군보건의료원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 무주군, 화재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 총력

무주군이 소상공인의 안전 확보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5년 납부한 화재보험료에 대해 80%, 최대 20만 원을 지원 하는 것으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2025년 1~12월 화재보험 가입 또는 갱신)이 대상이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면 2곳까지 인정되며,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받고 있거나 공고일 기준 휴폐업 신고를 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원 신청서와 화재 보험증권,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청 누리집 '알림 마당-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광 무주군청 지역경제팀장은 "화재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의 경영을 돕고 나아가 민생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생계 넘치는 무주경제 실현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최희호 기자

## 임실군,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

### 무주택 저소득층 신혼부부 최대 5천만원 무이자 지원

임실군이 관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신혼부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실질적인 주거복지 강화에 나선다.

이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청년·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실군은 지난해까지 저소득층 12가구에 1억 6천만원, 신혼부부 및 청년 8가구에 1억 5천만원 등 총 20가구에 3억 1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왔다.

올해에도 저소득층 3가구와 신혼부부 및 청년 2가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관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가능하며 이달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임실군청 종합민원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 무주택 기초생

활보장수급자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만19세부터 39세 이하의 미혼청년이다.

가구당 최대 5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되며,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계약금은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기본 2년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은 최대 2회, 1자녀 가구는 3회, 2자녀이상 가구는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실군 관내에서는 임실도주공아파트와 예교리아파트가 해당된다.

임대보증금은 임대기간 종료 시 회수되며, 지원대상자가 월 임대료나 관리비를 3개월이상 체납하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즉시 회수 조치된다.

이와 함께 임실군은 임실읍·관촌면·오수면 일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

와 민간임대, 민간분양을 아우르는 총 1,000세대 규모의 주택공급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별로는 임실읍에 전용면적 84㎡형 및 59㎡형 각 60세대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 120세대가 조성되고, 오수면에는 전용면적 59㎡형 공공임대주택 80세대가 공급된다. 관촌면에도 임실읍과 동일한 규모로 공공임대주택 120세대가 조성될 계획이다.

임실군은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민간임대와 분양주택을 연계 공급해 군민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지역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유입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임대보증금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종합민원과(640-2284) 또는 임실군 홈페이지(www.imsil.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최후식 장수군수, 설 명절 직원들과 떡국 오찬 가져

최후식 장수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9일 군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떡국을 먹으며 새해 인사를 나누고 지난 한 해 군정 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온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떡국 오찬 행사에는 장수군청 실·과장을 비롯해 직원 360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고 새해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온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새해 군정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후식 군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고 있는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명절 전·후에도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즐겁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최 군수는 "병오년 새해에도 '금석위계(金石爲階)'의 자세로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수=최진수 기자

###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청웅면분회, 2026년 정기총회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청웅면분회는 지난 5일 청웅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분회 활동에 대한 사업 및 결산보고와 함께 금년도 사업계획, 경로당 운영 전반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또한 청웅면분회는 앞으로 △회원간 소통과 화합 강화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 제고 △건강·여가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주요 운영 방향으로 삼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나가기로 했다.

이외에 분회장은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소통과 화합의 중심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에 힘쓰고, 회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노인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특별 감찰 실시

### 본청 비롯한 사업소, 읍면 등 대상

장수군은 설·명절을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를 예방하고 일하고 청렴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관행적 금품·향음 수수 등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방지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수군은 이번 감찰이 단순한 적발 위주의 점검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자 스스로가 책임감 있는 자세로 근무할 수 있도록 내부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근무시간 중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설 명절 공직기강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귀성객 편의, 연휴기간 동안 응급의료·정소관리 등 군민 불편사항, 상하수도 동파 등 생활민원 관리, 대형 공사장·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 취약시설 관리 실태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본청은 물론 사업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비소출 불시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감찰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 중 고의성이 있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문책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

최후식 군수는 "보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모두가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진안군,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기능 강화

### 점자 키보드·글씨 크기 확대 등

진안군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애인 편의제공 기능을 확대 설치했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에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능을 개선한 것으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

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군청 내 설치된 2대를 비롯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료원, 노인복지관 각 1대, 그리고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등 총 17대를 대상으로 기능 개선을 완료했다.

이번 개선 사업을 통해 점자 키보드를 부착하고 음성 안내 기능을 제공해 시각장애인이 불편 없이 무인민원 발급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저시력자와 고령자를 위해 화면 글자 크기

와 버튼 크기를 확대하고 고 대비 화면을 추가하여 시인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군은 이번 기능 보강이 장애인의 기기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령자와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군민 등 다양한 계층의 민원 이용 편의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민원 창구 대기 시간 단축과 이동 불편 해소 등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 진안군, 설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

진안군은 설 연휴인 2월 15일에서 18일까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군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진료 체계를 운영한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비상 진료 기관은 지역 응급의료 기관인 진안군 의료원 을 비롯해 휴일 지킴이 약국 3개소로 일차별·당번제로 지정 운영된다.

2월 14일(토)에는 대부분의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이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진안군보건소는 비상 응급진료

상황반을 설치해 연휴 기간 동안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좌산, 월포, 평장 등 보건진료소 6개소도 함께 운영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진안군 의료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며, 연휴 기간 중 진료가 가능한 지역 응급의료 지킴이 약국 3개소로 일차별·당번제로 지정 운영된다. 2월 14일(토)에는 대부분의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이 평상시와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장수군,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 효과 쾌적한 농촌 대기환경 조성 본격화

장수군은 농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농촌 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큰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차를 유도함으로써 농촌 지역 환경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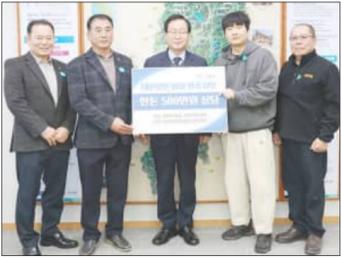
지원 대상은 2012년 이전(12.31.까지) 생산된 트랙터와 콤팩트기로, 농협·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 또는 매대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연식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해당 농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기종별 규격(마력)과 제조 연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연식이 오래된 순, 보조금이 적은 순, 신청 접수 순으로 선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이며 장수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농업기계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농업기계 폐차업소를 통해 정상 가동 확인, 폐차 입고, 폐차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대한한돈협회 완주지부, 설 맞이 '한돈' 280kg 기탁**

(사)대한한돈협회 완주지부(지부장 조동선)가 설 명절을 앞두고 완주군에 13년째 이어온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10일 대한한돈협회 완주지부 관계자들은 군수실을 찾아 500만 원 상당의 돈육(전지) 280kg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동선 지부장을 비롯해 추금해 부지부장, 박수홍 사무국장, 이종환 감사가 참석해 직접 나눔의 뜻을 전했다.

조동선 지부장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한돈을 기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축산농가들과 함께 나눔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한한돈협회 완주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13년째 매년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기탁받은 돈육은 완주군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원주=김명곤 기자



**정읍 산내면 의용소방대,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 기탁**

정읍시 산내면 의용소방대(대장 조오현)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9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200만원을 산내면 사무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평소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했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구 및 복지 사각지대 이웃들에게 전달돼 따뜻한 명절 온기를 더할 예정이다.

조오현 대장은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본연의 임무인 지역 안전 수호는 물론,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나눔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숙 면장은 "의용소방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대원들의 소중한 마음이 담긴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정성껏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엔라인 난닝구닷컴, 김제시에 7,400만원 상당 여성옷기부**

**겨울 녹이는 따뜻한 나눔**

김제시는 지난 9일 ㈜엔라인 난닝구닷컴(대표 이정민)이 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여성의류 100박스(7,400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엔라인 난닝구닷컴은 지난 2008년 설립된 여성의류 전문 기업으로 여성의류 제조·도소매 및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

임을 실천하는 데에도 앞장서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의류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정민 대표는 "의류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옷이 가진 작은 온기가 누군가의 하루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나눔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진안군 드림스타트, 방학 맞아 가족과 함께 영화 관람**

진안군 드림스타트는 방학을 맞아 지난 7일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30명을 대상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영화관람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이 일상에서 겪기 쉬운 문화·여가생활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보호자와 아동이 동일한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가족 간 화합과 유대감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참여 가족들은 마이클 작은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며 일상에서 벗어난 문화체험의 시간을 가졌으며, 아동들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보호자들 또한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 활동을 통해 자녀의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진안=전길빈 기자

**전주 타이어테크 평화점, 취약계층에 백미 전달**

**"풍요로운 설 명절에 보탬 되길"**

10일 전주 타이어테크에서 백미 30포를 전달하는 선행을 펼쳤다.

전주시 평화동 소재 타이어테크 최영두 대표는 25년째 사업을 지속하면서 어렵고 힘든 이웃과 함께 나눔을 실천해 보자는 양영환 전주시 의원의 권유에 선행에 나섰다.

평소 나눔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나눔을 실천할 계기를 찾지 못하던 그는 양 의원이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지역에 있으니 최 대표가 작은 실천을 확산할 수 있도록 시작하면 좋겠다는 제의를 받아 시작한다고 올해로 8년째다.

100만원 상당의 백미 30포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신채장애인복지회 진기전 회장과 회원들에게 추위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진기전 회장은 "최영두 대표의 정성으로 경오년의 설날을 따뜻하게 맞이하게 되었다"며 "매년 나눔으로 춥고 어려움을 사방의 온기로 녹여주는 이웃 타이어테크가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영두 대표는 "작은 마음의 전달에 몸뚱이를 모르겠다며 다음 명절에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장정철 기자



10일 전주 타이어테크에서 백미30포를 전달하는 선행을 펼쳤다



**한국서부발전 군산본부, 저소득층에 상품권 전달**

군산시는 한국서부발전(주) 군산발전본부(본부장 최정욱)이 설 명절을 맞아 저소득층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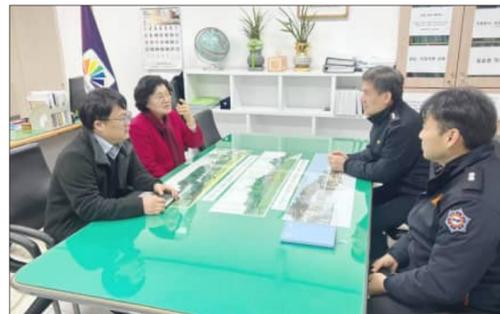
이번 기탁은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식에 참석한 장승준 부장은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기운이 지역사회 전반에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

명절 나눔을 준비했다"라며, "취약계층 이웃들께 따뜻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을 보내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국서부발전은 '우리의 에너지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세상을 열다'라는 비전 아래 △설·추석 명절 저소득 가구 지원 △청소년 장학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지승길 기자



**고창소방서, 사회복지생활시설 위문 활동 실시**

고창소방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누기 위해 10일 사회복지생활시설을 방문해 위문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 활동은 명절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창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고창군 상하면 소재 사회복지시설 '아름다운마을'

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위문에는 119안전복지기금을 활용해 총 5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시설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활동은 시설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고창=백종규 기자



**임실 운암면지사협, 설맞이 반찬꾸러미 지원사업 봉사활동**

임실군 운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최진욱, 김대식)는 지난 7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설맞이 반찬꾸러미 지원사업 봉사활동을 가졌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날 행사에서 준비한 떡(150kg)과 김치 등 반찬 꾸러미 세트를 복지 취약계층 40여가구에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였다.

운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작년 추석에도 선물꾸러미를 나누며 이웃돕기를 진행하였고, 이외에도 매월 2회 실시하는 행복가득 반찬사업, 효나눔 꾸러미 전달 등의 사업을 통해 마을 복지에 앞장서고 있다.

김대식 민간위원장은 "이번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감동의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함께하는 에너지 절감 캠페인**



**환경을 위한 실천, 작은것부터 시작 하세요!**



**1 엘리베이터 이용대신 계단 이용하기**



**2 퇴근시, PC 등 사용하지 않는 전원끄기**



**3 불필요한 메일 삭제하기**

〈一事一言〉



안호영 의원의 집념으로 길을 연 전북의 사법 접근성

김관춘  
주필

전북 도민의 오랜 숙원인 전주 가정법원 설치 가 마침내 현실 문턱에 다가섰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이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게 됐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법안의 본회의 통과와 확정이라는 점에서, 전주가정법원 개원이라는 역사적 이정표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는 전북 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과이자, 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이 과정에서 안호영 의원의 집념과 노고는 각별히 평가받아 마땅하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좌절을 겪고도, 22대 국회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을 재발의해 끝내 법사위 문턱을 넘겼다.

지역사법 인프라의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신념과 지역 대표 정치인의 책임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넘어 도민의 권익을 우선한 그의 노력은 전북 정치의 모범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 전주지방법원이 민사·형사 사건과 함께 가사·소년·가정보호 사건을 병행 처리해 왔지만, 전문성과 세밀함이 요구되는 분야를 일반 재판 체계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분명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사

법 인프라 속에서 비수도권 주민들은 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가정 문제와 소년 사건처럼 민감하고 개인적 사안일수록 접근성은 곧 권리 보장의 핵심 요소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라는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바로잡는 실질적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더욱이 고령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 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가정 관련 분쟁과 보호 사건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이혼, 양육권, 상속, 가정폭력, 소년 보호 사건 등은 단순한 법률 분쟁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과 직결되는 문제다.

전문성을 갖춘 가정법원이 지역 곳곳에 뿌리내리면, 분쟁의 사후 해결을 넘어 예방과 상담, 조정 기능까지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사법의 역할이 처벌과 판결을 넘어 공동체 회복과 사회 통합으로 확장되는 현대 법치의 방향과도 부합한다.

최근 3년간 전북의 가사 사건 처리 건수만 보더라도 연간 1,400건 안팎에 이르러, 이미 가정법원이 설치된 일부 광역시와 견주어도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이는 명백한 사법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였고, 국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서둘러 해소해야 할 과제였다.

가정법원은 단순한 재판 기관이 아니다. 이혼, 양육권, 가정폭력, 소년 사건 등 인간의 삶과 관계,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을 다루는 곳이다. 법률적 판단을 넘어 공감과 치유, 예방적 사법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전문 법관과 상담·조정 시스템이 결합된 가정법원 체계가 구축되면, 도민들은 보다 세심하고 인간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법의 언어가 삶의 언어로 번역되는 공간, 갈등을 넘어 회복을 지향하는 사법의 장이 전북에도 마련되는 셈이다.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지역 인재 양성과 법조 생태계 활성화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전문 법관을 비롯한 법원 직원, 조정위원, 상담 전문가 등 다양한 법조·사회복지 인력이 지역에 상주하게 되면 관련 서비스 산업과 공공서비스의 질도 함께 향상된다.

법률 서비스의 지역 내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면, 전북이 사법 서비스의 수요이자 공급지로 기능하는 새로운 법률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전 주시에 가정법원 본원이 설치되고, 군산·정읍·남원에 지원이 들어서면, 전북 전역에 촘촘한 사법 접근성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구조가 완성된다.

특히 청사 입지와 예산 문제 역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옛 전주지방법원 부지 활용 논의는 단순한 부지 재할용을 넘어 도심 재생과 공공시설 재배치의 기회 가 될 수 있다. 법원 청사는 단순한 행정시설이 아니라 시민 접근성과 공공성, 도시 공간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프라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효율성과 상징성을 모두 고려한 청사 계획을 수립해, 전주가정법원이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주가정법원 설치 과정은 정치권과 사법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 현안을 해결한 모범 사례로 남겨야 한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예산 확보, 인력 배치, 조직 설계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단 한 번의 정치적 성과로 끝나지 않도록, 초당적 협력과 지속적 관심이 이어져야 한다. 도민의 기대가 큰 만큼, 준비 과정에서 지연이나 혼선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본회의 통과와 차질 없는 개원 준비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되고, 2028년 3월 1일 전주가정법원이 예정대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정치권과 사법부, 지방정부가 한목소리로 협력해야 한다. 가정법원 설치 가 도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사법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전주가정법원은 전북 도민에게 '재판받을 권리'의 회복이자, 사법 정의의 균형을 되찾는 상징이다. 안호영 의원의 끈질긴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전주가정법원이 도민 곁에서 따뜻한 정의를 실현하는 사법의 정당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이는 전북이 더 이상 사법 서비스의 변방이 아니라, 공정과 배려가 공존하는 법치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사설

도로·철도·공항, 전북 성장판 열 인프라 혁신

전북자치도가 2026년을 '광역 SOC 대전환을 통한 지역성장 기반 구축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도로·철도·공항·주거·교통·공간정보 전반에 걸친 대규모 인프라 전략을 내놓았다.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광역 교통망과 정주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계획은 시의적절하다. 전북의 도약 여부는 올해 국가계획 반영과 핵심 사업의 착공·예타 통과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고속도로·국도·철도 등 국가계획 반영은 전북 미래의 분수령이다.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20년 지역 발전의 뼈대를 좌우한다.

전주~무주, 완주~세종 고속도로, 서해안선·영호남내륙선 철도 등은 단순한 교통망을 넘어 산업·관광·인구 이동의 지도를 재편할 핵심 축이다. 전주권 광역교통시설 15개 사업이 대도시권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실천을 이끌어 내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의 전략과 집념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의 글로벌 관문이자 새만금 개발 성공의 핵심 인프라다. 항소심 소송이라는 변수 속에서도 사업의 정당성을 적극 입증하고, 승소 이후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올 하반기 착공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

무주~대구 고속도로와 전라선 고속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역시 지역 균형발전의 관건이다. 영호남을 직결하는

동서축 고속도로는 관광·산업 연계의 전략 노선이며, 철도 고속화는 전북을 전국 교통망의 변방이 아닌 중심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정책적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해 예타 문턱을 넘고, 이미 국가계획에 반영된 달빛철도 등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지역개발과 도시재생,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2차 지역개발계획과 도시재생 사업, 혁신도시 성과 공유 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정주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 용역을 한 센터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업체 참여 확대는 지역 건설산업의 숨통을 트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통복지 강화와 미래교통 실증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행복버스와 바우처 택시 확대, 자율주행 버스와 물류 특수화물 운송 실증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미래 산업 기반 구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다. 전북형 반향주택 확대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전세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광역 SOC 대전환은 선언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국가계획 반영, 예타 통과, 착공과 완공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정치적 협상력, 행정 집행력,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결합돼야 가능하다.

전북도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올해를 전북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며, 도민은 장기적 비전을 공유하고 지지해야 한다. 광역 인프라의 대전환이 전북의 미래를 바꾸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화재 열전



경기전 하마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유물  
-지정일 - 2013년 11월 15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44 (풍남동3가, 전주사교)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 01일 창간 /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윤년 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주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매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읍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8626-6049
송천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철새 / 오탁번

우리 혼인생활 30년에  
밀줄 그을만한 뜨거운 사랑 없었지만  
하늘 높이 날아오를 만한  
기쁨 없었지만  
아내여 미운 아내여

다음 생에서 또 만나  
하늘을 날아가다가  
좀 쉬고 싶으면 날개를 접고  
가을 눈에 흠뻑 젖어 있는 햇살을  
납뽀납뽀 꼬아먹는

가리기 눈빛을 한  
철새나 팔까 몰라  
아내여 미운 아내여

시인 약력 : 1943년~2023년. 충북 제천 출생. 고려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8년부터 2008년까지 30년간 고려대 사범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

했다. 1966년 동아일보 동화부문, 1967년 중앙일보 시부문, 1969년 대한일보 소설부문 등 신춘문예 3관왕으로 등단했다. 제12회 한국문학작

가상, 동서문학상, 정지용 문학상을 수상했고 2010년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으며 1998년 시 전문 계간지 '시안(詩眼)'을 창간했다. 한국 시인협회장을 지냈다.



전북타임스 TIMES 자연보호 캠페인

전북의보물,  
갯벌과 철새를 지켜주세요.

설 연휴, 예능이 먼저  
찾은 섬으로 떠나보자

# 고군산군도

서해의 아름다운 섬 군락



## 1박2일·독박투어 등 예능방송프로그램 화면 속 풍경 따라 떠나는 군산시 고군산군도 겨울 여행

설 명절 연휴를 맞아 군산시가 서해의 아름다운 섬 군락,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한 특별한 겨울 여행을 소개했다.

선유도와 무녀도, 장자도 등으로 이어지는 고군산군도는 사계절 내내 각기 다른 매력을 품고 있는 천혜의 관광지다. 최근 인기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독박투어 등에 소개되면서 고군산군도의 매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고군산군도의 여러 섬이 연륙교로 연결돼 있어 짧은 일정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가까운 섬 여행지'로 가족 단위 여행객은 물론, 친구·연인과 함께하는 소규모 여행에도 부담 없이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고군산군도의 중심인 선유도는 명사십리 해변과 해안 산책로, 섬 곳곳에 자리한 전망 명소가 어우러져 설 연휴 가볍게 둘러보기 좋은 섬이다. 겨울 바다 특유의 고요함 속에서 탁 트인 수평

선을 바라보며 걷는 산책은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게 한다. 일몰 무렵에는 겨울 바다의 차분한 색감과 수평선 너머로 지는 해가 가슴속 깊은 여운을 남긴다.

선유도와 장자도를 연결하는 장자교 스카이워크를 통해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이색적인 경험도 고군산군도에서만 느끼는 색다른 즐거움이다.

무녀도는 물때에 따라 바닷길이 열리는 쥐뿔섬으로 유명하다. 자연이 허락한 시간에만 만날 수 있는 바닷길은 고군산군도가 간직한 신비로운 풍경 중 하나이다.

또한 대장도 대장봉에 오르면 선유도와 장자도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장관으로 고군산군도의 전체적인 매력을 고스란히 느끼게 된다.

K-관광섬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말도·명도·방축도 역시 고군산군도의 숨은 보석 같은 섬들로 새로운 인기 여행지이다.



독특한 지질 구조와 해안 풍경을 따라 걷는 해상 트레킹 코스는 자연을 천천히 음미하며 즐기는 여행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제격이다.

바다와 가장 가까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겨울 서해가 품은 담백하면서도 깊은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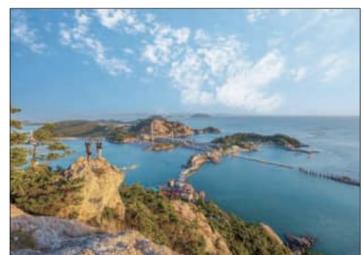
'보는 관광'이 아닌 '체험형 관광 콘텐츠'도 풍부하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스카이썬라인(썬라인), 고군산군도 자전거길 등은 활동적인 여행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흥분을 선사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으로 선정된 '고군산군도 자전거길'은 바다와 자전거 여행을 함께 만끽하는 이색 관광코스이다.

군산시는 설 연휴 기간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절을 앞두고 고군산군도 내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쾌적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주요 관광시설과 해안 산책로, 공공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시설물 점검을 통해 안전한 관광 동선을 마련했다.



연휴 기간에도 현장 점검과 관리 체계를 유지해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방송에 나온 여행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여행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관광객들이 고군산군도의 자연의 아름다움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섬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